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준희¹⁾ · 정정희²⁾

¹⁾삼성서울병원 간호파트장 ²⁾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삼성서울병원 간호팀장

The Effect of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on Nursing Practice Competence

Choi, Jun Hee¹⁾ · Jeong, Jeong Hee²⁾

¹⁾Unit Manager, Samsung Medical Center

²⁾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Nursing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nurses'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and its correlations with nursing practice competence in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Korea. **Methods:** A cross sectional survey design was utilized to assess nurses'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and job performanc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286 nurses who have been working on general ward for over 1 year.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AS 9.1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the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is 3.56 and that of nursing practice competence is 2.71. The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was statistically different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 and clinical work experience. Nursing practice competence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 clinical work experience, marital status, age, and working division. The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and nursing practice competence seem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each other ($r=.555, p<.001$). The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explains 32.0% of nursing practice competence ($F=20.20,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rogram development for enhancing the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is needed to improve nursing practice competence. We also need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nurses' initiatives and creativity.

Key words: Nurses, Learning, Clinical competenc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나날이 치열해지는 병원들 간의 경쟁으로 대형 병원들은 비용 효과적이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로 인해 병원 인력은 많은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높은 생산성까지 요구받고 있다(장

연희, 조운수와 광미정, 2006). 병원 인력의 30~40%를 차지하며 병원 내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병원이 서비스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론 또는 실무 지식뿐 아니라 리더십과 같은 역량들도 계속적으로 새로이 습득해야 한다(성영희와 정정희, 2006; O'Shea, 2003).

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간호사는 새로운 지식과 추

주요어: 간호사, 학습, 실무수행능력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 Hee

Samsung Medical Center, 50 Ilwon-dong, Gangnam-gu, Seoul 135-710, Korea.
Tel: 82-10-2017-9179, E-mail: junhic6@gmail.com

*본 논문은 2011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수정된 논문임.

투고일: 2011년 1월 31일 / 심사회의일: 2011년 2월 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25일

가적인 정보를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다수 병원의 간호 조직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 교육이나 전문 교육 등의 계속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한상만, 2010). 그러나 과거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교사 주도의 설교식 방법(didactic method)의 교육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더 이상 직무 역량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Nolan & Nolan, 1997) 비형식적이면서도 개별화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호의 상황적 특성은 대부분의 간호 조직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현 교육 방식으로는 학습자인 간호사의 학습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들며, 한정된 예산과 지원은 조직이 비용 효율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학습 접근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양남영과 문선영, 2007; Guglielmino & Guglielmino, 2001).

양남영과 문선영(2007)은 임상에서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위해서는 간호 조직이 주도가 되는 구조화된 교육체계보다는 간호사 각자가 주도가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비 구조화된 교육체계가 선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학습 형태를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지니는 개개인의 태도, 능력, 성격 특성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라 하며(Wiley, 1983), 이것은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김호장, 2004). Guglielmino와 Guglielmino (2001)는 특히 지식 공유와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업무 성과와 더욱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최근 외국의 간호학 분야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적용에 관한 연구들(Adamson, 2009; O'Shea, 2003)과 함께 간호직을 위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평가 도구 개발 연구(Fisher, King, & Tague, 2001)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간호학생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학업 성취도, 문제해결 능력, 임상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수행은 있었으나(양진주와 박미영, 2004; 조학순, 2007)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을 지속해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간호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 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할 학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을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상관성을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란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학습 과정에 대해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태도, 능력, 개인 특성 등의 인성적 특성(Wiley, 1983)으로,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 도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박지혜(1998)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간호실무 수행능력

간호사가 다양한 실무 환경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얻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Benner, 1982),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간호 실무를 반영하고 보강하는 지식, 기술, 가치, 믿음,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장금성, 2000). 본 연구에서는 Benner의 이론에 근거해 장금성(2000)이 개발한 각 임상등급별 13개 실무능력의 수준을 가리키는 행동지표를 이미정(2002)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일 종합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사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II. 문헌고찰

1.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자기주도학습 이론은 성인의 주체적인 학습 행위에 주목하여 수동적 학습자의 관점을 갖고 있던 전통적 학습 이론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O'Shea, 2003). Knowles (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개인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그들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며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우고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정의는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많은 문헌들에서 학습 과정 혹은 학습 방법으로 보는 관점과 개인적 자질이나 속성, 즉 학습에 대한 태도, 능력,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탐구되면서, '아동학습-성인학습 연속성 모델'을 통해 책임과 자율성, 통제, 독립성, 비판적 성찰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었다(Fisher et al., 2001; Knowles, 1975).

학습자는 교사 혹은 타인주도학습인 아동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인 성인 학습을 양 극으로 하는 연속선 위에 놓이게 되는데, 아동 학습자는 교사에게 의지하여 학습 요구 정립, 목표와 계획의 수립, 학습 활동 시행과 평가를 하고 강의나 교습과 같이 매우 구조화된 상황을 선호하는 반면, 성인은 성장해가면서 자신의 결정과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도적 자아개념을 형성해 가는 존재이므로 성인 학습자는 그들 자신의 학습 요구에 대해 직접 책임을 갖기를 선호한다(Knowles, 1975). 학습자는 교사(타인)주도학습 대 자기주도학습 연속선에서 그들의 학습에 대해 얼마나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며, 학습 요구 사정과 학습 전략 수립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타인주도 학습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도 있다(Fisher et al., 2001). 자기주도학습의 정도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통제와 조절, 자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와 준비도의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필요한 태도, 능력, 개인 특성의 정도를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라고 한다(Wiley, 1983).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초점이 놓이는 개

념으로, 자기주도학습에는 학습의 계획, 수행, 판단의 책임감을 학습자가 갖도록 도와주는 외부적 요인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인성 특성 즉,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인 내부적 요인이 모두 중요한 요인이 되나(유귀옥, 1997), Guglielmino와 Guglielmino (2001)는 학습 상황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일어나는 데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며 내부적 요인인 학습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1977년에 Guglielmino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 도구를 이용한 기업 내 성인학습자의 업무 성과와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면서 실증적 연구가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실무 수행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이나 업무의 변화가 많은 직업에서 업무 성과와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Guglielmino & Guglielmino, 2001; Guglielmino, Guglielmino, & Long, 1987).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의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교사, 지역사회 주민, 일반 기업 직원과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일반 기업 직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직무 수행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전문 기술직에 종사할수록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김교식, 2004; 김호장, 2004; 박지혜, 1998).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양남영과 문선영(2007)의 연구에서는 기혼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높다고 하여 다른 직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 변인 관련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 조직 몰입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은 단순히 학습에 관련된 요인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특히, 전문 기술직의 직무 능력이나 업무 성과와 더욱 관련이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학습이 일어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간호사를 비롯하여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습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꾸준히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상관성

간호실무 수행능력 또는 간호 역량은 모든 임상적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판단력, 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 또는 상태를 의미하며, 간호의 전문적인 능력과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장금성(2000)은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획득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간호 실무를 반영하고 보강하는 지식, 기술, 가치, 믿음,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고 하였다.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임상적 판단과 대처, 영향력 등 경력이나 경험에 따라 발전되는 부분이 있으나 모든 간호 역량이 폭넓게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하여(장금성, 2000; 성영희와 정정희, 2006), 실무 경험 외에도 간호실무 수행능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While (1994)은 문헌 분석을 통해 연령과 경험, 이해력, 사기(morale)와 전문적 발전의 기회를 포함하는 직무 만족도, 자기 업무수행에 대한 지각, 사회적 이미지, 리더십이 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자아개념(이미정, 2002; 장연희 등, 2006), 비판적 사고(박진아, 2008; 조학순, 2007)가 실무 수행능력에 대해 설명력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송경자 등(2006)의 연구에서는 최종 학력보다는 학력의 변화가 있었던 군에서 간호실무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보다는 학습에 대한 의지가 실무 수행능력을 설명하는 데 관련이 있는 요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간호실무 수행능력 관련 요인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간호학생 또는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Adamson, 2009; O'Shea, 2003; Fisher et al., 2001), 국내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간호학생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임상 수행능력과 학업 성취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양진주와 박미영, 2004; 조학순, 2007).

이상의 고찰과 함께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조직 몰입 및 직무 만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양남영과 문선영, 2007)와 간호사의 실무 수행능력이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박경남과 박미경, 2008)로 미루어 볼 때,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간호실무 수행능력과 상관성이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9월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일 종합병원의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경력 만 1년 이상의 간호사 전체(697명)를 모수로 하여 진료과 특성별로 간호사수를 파악한 후 그 구성 비율을 적용하여 각 진료과별로 무작위 표출한 간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는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측정 결과에 대한 타당도가 낮다는 연구결과(이미정, 2002)를 반영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Guglielmino가 1977년에 개발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측정 도구를 박지혜(1998)가 수정 및 보완하여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연구에 사용한 총 39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독창적 접근 9문항, 탐구적 특성 4문항, 자발적 계획 6문항, 학습의 책임성 4문항, 학습에 대한 사랑 7문항, 미래 지향성 4문항, 학습자적 신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지혜(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 간호실무 수행능력

장금성(2000)이 개발한 간호사의 임상경력 개발모형에서의 4단계 임상등급에 따른 13개 실무능력에 대한 96개의 행동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이미정(2002)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과학적, 인격적, 윤리적, 심미적 실무능력군의 4개의 실무능력군, 13개 하위 영역의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그렇

지 않다'의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의 4점으로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 수행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미정(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5$ 였다.

4.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본부에 연구논문 자료수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에 연구 동의서를 첨부하여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이었으며, 300부를 배부하여 28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6.3%였다. 이 중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3부를 제외하고 286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통계 프로그램은 SAS 9.1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및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3세로 최소 23세에서 최대 41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82.5%로 기혼자보다 많았다. 최종 학력은 4년제 간호대학졸이 7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문대졸(9.8%),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6.6%), 편입과정 재학 및 졸업(5.6%)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임상경력은 4.5년이며, 최대 임상경력은 19년이었고, 총 임상경력은 1년 이

상 4년 미만인 54.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근무부서 이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1.8%, 이동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68.2%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6)

특성	구분	n (%) or M±SD	
연령	26세 이하	134 (46.9)	
	27~30세	124 (43.4)	
	31~34세	21 (7.3)	
	35세 이상	7 (2.4)	
	총 임상경력	4.5±2.8	
성별	남	0 (0.0)	
	여	286 (100.0)	
	결혼 상태	기혼	50 (17.5)
		미혼	236 (82.5)
최종 학력	전문대졸	28 (9.8)	
	간호대졸	223 (78.0)	
	편입과정 재학 및 졸업	16 (5.6)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19 (6.6)	
총 임상경력	1년 이상~4년 미만	155 (54.2)	
	4년 이상~7년 미만	79 (27.6)	
	7년 이상~10년 미만	40 (14.0)	
	10년 이상	12 (4.2)	
현 근무부서	내과계	124 (43.3)	
	외과계	98 (34.3)	
	산부인과	24 (8.4)	
	소아과	26 (9.1)	
	기타 (안과, 이비인후과)	14 (4.9)	
부서 이동 경험	유	91 (31.8)	
	무	195 (68.2)	

2.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전체 평균은 3.56점이었고, 7개 하위 영역 중 학습자적 신념과 자발적 계획의 평균이 각각 3.87점과 3.70점으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학습의 책임성으로 평균 3.30점이었다(표 2). 대상자의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평균 점수는 2.71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윤리적 실무능력군, 인격적 실무능력군, 심미적 실무능력군은 평균이 2.74점에서 2.75점 정도로 점수가 비슷하였으나 과학적 실무능력군의 평균 점수는 2.58점으로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표 3).

표 2.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N=286)

항목	M±SD
독창적 접근	3.41±0.45
탐구적 특성	3.58±0.45
자발적 계획	3.70±0.42
학습의 책임성	3.30±0.56
학습에 대한 사랑	3.55±0.42
미래 지향성	3.53±0.48
학습자적 신념	3.87±0.47
계	3.56±0.34

표 3. 대상자의 간호실무 수행능력 (N=286)

항목	M±SD
과학적 실무능력군	2.58±0.37
윤리적 실무능력군	2.75±0.43
인격적 실무능력군	2.75±0.37
심미적 실무능력군	2.74±0.37
계	2.71±0.3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최종 학력과 총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연령, 결혼 상태,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결혼 상태는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에서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호실무 수행능력에서는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간호실무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력에 따른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에 있어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군은 나머지 군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그 나머지 군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있어서도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군은 나머지 군

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임상경력 역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관련하여 총 임상경력 7년 이상 군은 총 임상경력 7년 미만 간호사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p < .05$).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총 임상경력 4년 이상 군들과 4년 미만 군의 차이가 있었으나, 총 임상경력 4년 이상 군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 근무부서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현 근무부서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산부인과 군이 내과군, 외과군 및 기타 군과 유의한 차이($p < .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이동 경험은 두 군 간에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4).

4.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상관성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5),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각각의 하위 영역들 간에도 모두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5.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단변량분석을 통해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최종 학력, 총 임상경력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임상경력이 유효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Adjusted R² 값은 .320으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32.0%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하위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

(N=286)

특성	구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간호실무 수행능력		
		M±SD [†]	t or F	p	M±SD [†]	t or F	p
연령	26세 이하	3.51±0.31	3.53	.153	2.63±0.32 ^a	8.30	< .001
	27~30세	3.56±0.36			2.76±0.31 ^b		
	31~34세	3.70±0.37			2.82±0.40 ^b		
	35세 이상	3.84±0.37			3.10±0.34 ^c		
결혼 상태	기혼	3.59±0.37	0.52	.470	2.86±0.27	12.22	< .001
	미혼	3.55±0.34			2.68±0.34		
최종 학력	전문대졸	3.57±0.29 ^a	5.19	.002	2.69±0.28 ^a	7.85	< .001
	간호대졸	3.53±0.34 ^a			2.68±0.32 ^a		
	편입과정 재학 및 졸업	3.58±0.27 ^a			2.77±0.36 ^a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3.84±0.39 ^b			3.05±0.35 ^b		
총 임상경력	1년 이상~4년 미만	3.54±0.31 ^a	4.64	.004	2.64±0.31 ^a	8.81	< .001
	4년 이상~7년 미만	3.50±0.37 ^a			2.73±0.32 ^b		
	7년 이상~10년 미만	3.65±0.40 ^b			2.90±0.33 ^{bc}		
	10년 이상	3.83±0.30 ^b			2.90±0.46 ^{bc}		
현 근무부서	내과계	3.59±0.33	1.82	.125	2.73±0.34 ^a	3.16	.015
	외과계	3.56±0.37			2.72±0.33 ^a		
	산부인과	3.39±0.27			2.51±0.25 ^b		
	소아과	3.51±0.34			2.67±0.40 ^{ab}		
	기타 (안과, 이비인후과)	3.56±0.31			2.85±0.21 ^a		
부서 이동 경험	유	3.59±0.37	1.02	.313	2.75±0.33	2.22	.137
	무	3.54±0.33			2.69±0.33		

[†]LSD 사후 검증: 같은 문자가 있는 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5.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상관성

(N=286)

항목	구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간호실무 수행능력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자발적 계획	학습의 책임성	학습에 대한 사랑	미래 지향성	학습자적 신념	계	과학적 실무 능력군	윤리적 실무 능력군	인격적 실무 능력군	심미적 실무 능력군	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423***												
	자발적 계획	.561***	.441***											
	학습의 책임성	.413***	.160***	.389***										
	학습에 대한 사랑	.604***	.352***	.510***	.490***									
	미래 지향성	.574***	.382***	.382***	.367***	.583***								
	학습자적 신념	.517***	.406***	.406***	.500***	.591***	.454***							
	계	.842***	.576***	.757***	.637***	.816***	.737***	.756***						
간호실무 수행능력	과학적 실무능력군	.444***	.271***	.394***	.262***	.349***	.337***	.223***	.454***					
	윤리적 실무능력군	.383***	.256***	.405***	.278***	.354***	.330***	.331***	.457***	.630***				
	인격적 실무능력군	.441***	.325***	.455***	.233***	.398***	.371***	.300***	.457***	.636***	.677***			
	심미적 실무능력군	.471***	.340***	.471***	.292***	.350***	.385***	.350***	.510***	.710***	.709***	.733***		
	계	.053***	.350***	.500***	.303***	.412***	.412***	.347***	.555***	.841***	.822***	.878***	.933***	

***p< .001.

표 6.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N=286)

항목	β	t	B	SE	p
독창적 접근	.246	3.52	.181	.051	< .001
탐구적 특성	.092	1.63	.070	.043	.105
자발적 계획	.251	3.84	.201	.053	< .001
학습의 책임성	.049	0.82	.201	.036	.414
학습에 대한 사랑	.057	0.80	.029	.057	.427
미래 지향성	.064	0.96	.046	.046	.338
학습자적 신념	-.028	-0.42	-.020	.048	.678

Adjusted R²=.320, F=20.20, p<.001.

영역 중 독창적 접근과 자발적 계획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발적 계획, 독창적 접근의 순서로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6).

V. 논 의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임상경력 만 1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사의 학습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 제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간호사의 실무 수행능력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과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및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평균 점수는 3.56점이었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양남영과 문선영(2007)의 연구결과(3.50점)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일반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교식(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3.81점이나 박지혜(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3.70점보다는 다소 낮은 점수였다. 이는 간호 업무의 일상적, 반복성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반 기업 직원보다 적을 수 있으며(양남영과 문선영, 2007), 대부분 일반 기업의 직무 교육이 개별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병원 내 간호 교육은 아직 강의자 주도의 교육인 타인 주도학습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한수정, 2007)으로도 생각된다.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하위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학습자적 신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학습의 책임성으로 나타났는데, 약간의 점수 차이는 있으나 양남영과 문선영(2007)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간호사로서 실무 수행능력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와의 병행으로 인해 학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며 책임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학순(2007)의 연구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은 하위 영역이 학습에 대한 사랑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이 학습자적 신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은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 만족할 수 있으나 간호사는 실무 수행을 위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특히 최종 학력의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군에서 유의하게 매우 높은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점수를 보여 대학원 진학은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원 진학은 의무가 아닌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한상만, 2010)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강한 간호사일수록 대학원 진학 성향이 강하며, 학력 변화가 있었던 군에서 간호실무 수행능력 점수가 높았다는 송경자 등(2006)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취업 후 계속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개인적 성향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러한 간호사들이 지속적 학습을 통해 높은 간호실무 수행능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와 양남영과 문선영(2007)의 연구에서 모두 임상경력이 가장 적거나 많은 군이 아닌 일정 정도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군에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점수가 가장 낮다는 결과의 일치를 보였는데, 이는 입사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 및 업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과 열의를 갖게 되나 경력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실무에 익숙해지게 되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끼면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향상 속도가 느려지다가 승진 준비 등 학습을 해야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 다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커지는 것(Dixon, 1993)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다시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향상 속도 역시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실무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상관성은 간호학생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실무 수행능력의 상관성($r=.367, p<.001$)이나 간호학생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성($r=.187, p<.01$)보다 더 높은 상관성을 보여(양진주와 박미영, 2004; 조학순, 2007) 간호학생보다도 간호사의 실무 수행능력이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더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다른 연구결과들(김교식, 2004; 박지혜, 1998)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점수는 일반 기업의 직원들에 비해 약간 낮으나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일반 기업 직원보다 직무 성과 혹은 실무 수행능력과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간호직이 타 직종보다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함양이 중요한 직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간호조직은 간호사들이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형태 및 인력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직은 간호 실무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자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박진아, 2008; Simpson & Courtney, 2002)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하려는 성향을 지닌 간호사들이 꾸준히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을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상자의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은 대상자의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32.0%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개념(이미정, 2002), 비판적 사고(박진아, 2008) 외에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요인으로 독창적 접근과 자발적 계획이 확인되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는 간호사의 독창성과 자발성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간호사의 지속적 실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력 혹은 경험 외에 학습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 부여와 자발성이 있어야 하며(Lunyk-Child et al., 2001), 매년 비정형적 상황에 순간순간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간호 실무에서 예술과 과학이 겸비된 전인적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Simpson과 Courtney(2002)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독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하며(박진아, 2008),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획일적인 주입식의 교육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Natale & Ricci, 2006). 또한 교육의 형태에 있어 대규모의 중앙교육뿐 아니라 간호단위별 소그룹 형태의 상호 토론식 교육을 병행하고, 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간호 지식 외에도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학습이 계속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발성은 간호사가 계속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한상만, 2010), 간호사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신규 때부터 경력 별로 달성해야 할 간호 역량을 제시해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Clinical ladder system의 도입 등 연차나 능력에 따라 다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성장 및 승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한편, 현장 관리자는 간호사들이 스스로 현장 상황에 맞게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학습을 지도하는 사람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지도하는 경우 학습자가 일관성 있는 학습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며 오히려 학습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O'Shea, 2003), 간호사들이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지도하는 프리셉터들이 먼저 자기주

도학습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지도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프리셉터를 교육하는 부서는 프리셉터 교육 프로그램에 이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는 등의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및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수준과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실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일반 병동 경력 1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286부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서로 상관성이 있으며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발적 계획과 독창적 접근이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간호사의 실무 수행능력 확대와 모든 실무 영역의 고른 발달을 위해서는 간호사가 스스로 학습하려는 자발성을 높이고 동기부여하며, 이와 함께 독창성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일반 병동 간호사로 대상을 제한하여 수행된 연구로, 앞으로 다양한 의료 기관 및 근무 부서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반복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조직과 같은 변수들과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의 상관관계 및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후 실무 수행능력의 변화 등 그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김교식(2004).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W그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호장(2004). *조직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개인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S 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경님, 박미경(2008).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조직몰입 및 간호업무 수행도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4(1), 63-71.
 박지혜(1998). *기업 내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관한 연구-조직*

특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박진아(2008). *종합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울산.
 성영희, 정정희(2006). 일 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사의 핵심역량 도출 및 근무지 특성별 중요도 인식 비교. *간호행정학회지*, 12(1), 76-93.
 송경자, 박승현, 조정숙, 권미경, 박정선, 남승남 등(2006). 일개 대학병원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12(1), 97-108.
 양남영, 문선영(2007).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3(4), 473-480.
 양진주, 박미영(2004).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2), 271-277.
 유귀옥(199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미정(2002). *간호사의 실무능력과 관련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장금성(2000).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장연희, 조윤수, 광미정(2006). 간호사의 간호역량과 관련요인 분석. *임상간호연구*, 12(1), 7-19.
 조학순(200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2(2), 57-72.
 한상만(2010). *간호사의 계속교육 유형에 따른 참여 동기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수정(2007).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실무능력과 실무교육 요구도. *간호행정학회지*, 13(3), 302-310.
 Adamson, K. A. (2009). Integrating human patient simulation to nursing curriculum.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5(3), e129-e155.
 Benner, P. (1982). Issues in competency-based testing. *Nursing Outlook*, 30(5), 303-309.
 Dixon, E. A. (1993).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nurses' self-directed learning project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9(2), 89-94.
 Fisher, M., King, J., & Tague, G. (2001). Development of a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1(7), 516-525.
 Guglielmino, P. J., & Guglielmino, L. M. (2001). Moving toward a distributed learning model based on self-managed learning.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66(3), 36-43.
 Guglielmino, P. J., Guglielmino, L. M., & Long, H. B. (1987).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Implication for busines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16, 303-317.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NY: Association Press.
 Lunyk-Child, O. I., Crooks, D., Ellis, P. J., Ofosu, C., O'mara, L., & Rideout, E. (2001). Self-directed learning: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0(3), 116-123.

- Natale, S., & Ricci, F. (2006). Critical thinking in organizations. *Team Performance Management, 12*(7/8), 272-277.
- Nolan, J., & Nolan, M. (1997). Self-directed and student-center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1. *British Journal of Nursing, 6*(1), 51-55.
- O'Shea, E. (2003).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 (1), 62-70.
- Simpson, E., & Courtney, M. (2002).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education: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8*(2), 89-98.
- While, A. E. (1994). Competence versus performance: Which is more importa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3), 525-531.
- Wiley, K. (1983). Effects of a self-directed learning project and preference for structure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Nursing Research, 32*(3), 181-185.